

## 광주시·전남도 행정 '패러다임'이 바뀐다



**광주 '소통'**

SNS 활용해 시민과 1:1 대화 수평적 행정체계

**전남 '혁신'**

F1·솔라시도 등 10년 道政 난맥 대폭 수습할 듯

광주시정과 전남도정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운동가 출신 광주시장에, '혁신'을 주창하는 새 도지사의 등장은 시·도정에 어떤 형태로든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민선 6기 광주시의 경우 기존 능률 위주의 수직적 행정 시스템이 깨지고, 서열 없는 소통을 중시하는 수평적 행정으로 틀 자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민선 3~5기까지 10년 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남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운장형 광주시장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같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롤모델로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박원순식 '시민과의 소통' 정책이 핵심 국정시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선 적극적인 대시민 행보다. 시장이 시민들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민원을 빠른 속도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소통의 도구로는 일명 카페트라고 하는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SNS)' 등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접 계정인 '카페트' 행정을 통해 시민과 일대일 소통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바로 알아보도록 지시하는 시스템을 애용하고 있다.

**'풍당도시' 오명 벗는 목표 ▶11면**  
**도시재생·동명 벽화마을 ▶18면**



**월드컵-내일 가나와 평가전 ▶20면**  
**酒림대 총장 김재동 광주강연 ▶22면**

다만, 광역행정을 지휘해야할 시장이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집착할 경우 행정 전반이 비전문적, 단편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경계대상이다.

시장 내부의 행정시스템도 '수평적 소통 행정'으로 전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청 공직자들도 배려의 리더십을 갖춘 윤 당선자의 입성으로 자율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다.

광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사실 그동안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생활해온 행정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수장을 맡다 보니, 자신들이 결정한 행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직원들 사이에는 창조적 업무 처리보다는 시키는 일이나 처리하는 자 조석인 분위기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4선의 국회의원, 5차례의 당 대변인을 지낸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가 이끌 민선 6기 도정은 '혁신과 변화'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F1, 솔라시도(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등 민선 3·4·5기가 내놓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친환경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따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8일 오후 출범한 민선 6기 전남도 인수위원회는 6개의 분과위원회 외에 현안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 도정 전반에서 드러난 현안과 함께 최근 불거진 안전·재난 문제, 전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 방안 등도 다루게 된다.

이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도 "활력과 매력과 온정이 식어가는 전남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행동하는 혁신 도지사가 돼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 3~5기의 '공'보다는 '과'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풍년 기원 농심**

8일 오후 이앙기 한 대가 화순군 능주면 너른 논바닥을 오가며 모를 심고 있다. 촘촘히 심어진 모가 가을 추수까지 탈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논 주인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대탕평' 해야

총리 후보자·靑 수석 등 곧 발표  
호남 배려 없는 '반쪽 정부'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곡성 출신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한 데 이어 현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새 국무총리 후보를 금명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대탕평인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정현 전 수석의 사직을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자리에 대구·경북(TK) 출신인 윤 수석을 임명하고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인사에 호남 출신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도 호남 배려는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세월호 정국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빠른 '인대 총리 카드'가 실패하자 개혁성과 도덕

성이라는 2가지 인선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서 정중원 총리의 후임자를 물색해 왔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충청지역 광역단체장(4곳)을 모두 야당에 내주면서 중원을 잃음에 따라 충청권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이원중 지역발전위원장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충청출신 인사

가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 출신인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의 이름도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청와대 1기 참모의 핵심으로 '창업공신'격인 이 전 수석이 전격 물러나면서 청와대 참모진의 대대적인 교체설이 힘을 얻고 있다.

새 총리 임명을 비롯한 내각교체와 함께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참모들의 변화 등 큰 폭의 인적쇄신 없이 박 대통령이 공안한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대개조와 공공개혁 등은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다는 관측에서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퇴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인 속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월호 재판 내일 광주지법서 시작...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출석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인 10일 이 선장 등 15명을 소환, 이들의 법정 출석이 처음 이뤄지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대거 재판을 방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도 느껴진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사건 쟁점을 파악·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에 따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한 쟁점 정리, 증거 신청,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등 공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광주지법은 국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인 점을 감안, 당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게 방청을 허용하고, 201호 법정의 1개 법정을 보조 법정으로 활용해 모니터로 재판실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검

색대를 법정 앞에 설치하는 등 출입 절차도 대폭 강화했고 재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피해자 심리상태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전 단원 2학년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43)씨는 국가·해양경찰청·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대상으로 증거보전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 지원에 냈다. 전씨는 재판부에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 세월호 자동식별장치 기록, 교신·로그인 기록 등의 보전을 요청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층 식당서 시신 수습**  
**실종 13명 사망 291명**  
※ 세월호 참사 54일째  
8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LIRIKOS

마린콜라겐으로 팍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

주름만 큼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피부이력 및 주요 백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 문의: (주)리리코스 고객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